

# 청소년들의 상상력 ‘쑥쑥’

### 전북 과학축전 성료... 과학꿈나무와 도민의 오감 만족 LED 댄스 공연·드론 퍼포먼스·버스킹 등 큰 호응

과학꿈나무와 도민의 오감을 만족 시킬 '제14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지난 20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막을 올렸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송성환 전라북도의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6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LED트론 댄스 공연으로 과학축전의 신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드론의 군집비행과 로봇의 다양한 군무, 우주를 표현한 레이저맨의 합동 퍼포먼스가 큰 호응을 받았다.

22일까지 3일간 전라북도청 일원에

서 열리는 이번 과학축전은 132개의 학교·출연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160여개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상상을 앞지르는 5G, 상상하는 전북꿈나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전은 그동안 축전에 올 기회가 적었던 도내 원거리 학생대상으로 수송 버스 지원과 함께 특수학교 참여 지원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축전에 참여했다.

도는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사이언스 버스킹, 바이오 특특! 특별 강연, 드론 스포츠 등을 통해 평소 어렵게만 느꼈던 과학을 쉽게 이해하

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탄소산업'과 '농생명·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소개해 전북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상을 쉽고 재밌게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과학축전은 전북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자리로, 특히 올해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면서 "매해 과학축전에 많은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과학축전을 통해 얻은 경험과 영감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의정부지검 빠져 나오며 인사하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열린 '검사 외의 대화'를 마치고 의정부지검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중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마련할 것을 지난 16일 지시, 이날 의정부지검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일선 검찰청에도 방문해 직접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전북도가 함께합니다

### 지자체 차원의 '유연한 입법방식' 적용 첫 규제개선 시도

전북도는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해야 할 자치법규 6개 과제를 발굴했다.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했으며,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입법적 토대를 완벽하는 등 중단없는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발맞추어 도를 중심으로 도내 시·군과 사례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서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협업을 통한 개선사례 발굴을 추진했으며, 이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 개선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전환방안에 1차로 포함된 전북도 사례는 크게 지역특화산업, 지역주민경제, 지역주민생활 등 3개 영역 6개 과제이다.

지역특화산업에는 수상레저산업진흥보조금 지원사업 확대(전북도), 향민화물 유치지원대상 및 사업범위 확대(전북도)가 있고, 지역주민경제에는 농촌융복합사업자 개념확대(전북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정읍) 등이 있다.

지역주민생활과 관련,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확대(완주), 건설폐기물의 토양오염도 검사기관 확대(전북도)가 있다.

먼저 지역특화산업 영역 중 수상레저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4종으로 제한되어 왔던 보조금 지원대상에 기타 유형을 신설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민화물 분야는 4종으로 한정된 재정지원과 6종으로 한정된 지원사업 범위의 확대를 위해 기타 유형을 신설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지역서민경제 영역은 농·어민을 위한 과제로 8종으로 한정된 농촌융복합사업자 개념에 기타 유형을 신설하여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차 산업시대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도 확대하여 지역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활력 촉진이 기대된다.

한편 지역주민생활 영역에서는 공공 인프라 과제로 공립도서관 외에 사립도서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특장하였던 건설폐기물 토양오염도 검사를 국가나 지자체 등이 인정하는 토양오염도 검사 전문기관에서도 가능 하도록 확대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노력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신고자 10명에게 포상금 3천 7백여만원 지급 결정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신고한 10명에게 3700여만원(최고 800만원, 최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선거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선거

범죄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최대 5

억원으로써, 선거범죄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영·호남 상생발전 위한 공무원 교류 박차

전북도가 영·호남 공무원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인재개발원(원장 신현승)은 영·호남 공무원 교육생들의 상호 방문 교류행사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이해와 소통으로 우의를 돈독히 하고,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영호남 공무원 교류' 교육을 공동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본 교류는 2013년 10월 31일에 전북·경북 양도의 인재개발원 주도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이번 교육은 경북공무원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주를 먼저 방문하고, 전북은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경북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교육 내용은 영·호남 교류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양도 지역에 살아 숨 쉬는 백제·신라·가야 등 유구한 고대 역사와 문화에 대한 특강과 함께 직접 보고 체험하는 현장학습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우리 도를 방문하는 경북공무원(도·시군 37명) 광한루원, 한옥마을, 새만금갯벌리개최지, 선유도, 태권도원 등 전북의 관광자원

과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10월 방문하는 전북공무원은 경주의 신라 유적지와 세계문화유산, 영덕의 블루로드 및 풍력발전단지, 봉화의 백두대간 수목원, 문경의 오미자마을 등을 탐방하고 상호 교류방안을 논의한다.

신현승 전북도인재개발원장은 "6년간 이어온 영호남 공무원 교류는 교류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교류는 영호남이 '가야문화'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생발전의 토대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연관성 집중 조명

### 전북도, 25일 국립고궁박물관서 학술대회 개최

전북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 교수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기조강연으로 시작

되어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음을 확인하고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간의 연관성 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을 주제로 한 6편의 논문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유바다 교수(고려대)의 '동학농민

혁명 격문, 기미독립선언서, 헌법전문 비교', 장석홍 교수(국민대)의 '동학농민전쟁과 3.1운동의 관계', 조재곤 연구교수(서강대)의 '동학농민군 김형진의 의병활동과 그 후', 김철배 학에서(임실군청)의 '임실 동학점주 김영원의 생애와 3.1운동', 성주현 연구교수(순실대)의 '동학농민군 유대흥과 3.1운동', 정을경 책임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3.1만세운동'이 발표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